



## 피어라, 나팔꽃!

교안 작성 : 김혜숙

니시무라 유리 글 | 오카다 치아키 그림 | 조진화 옮김

키위박스 | 9,000원 | 저학년

### 책 소개

《피어라, 나팔꽃!》은 제25회 히로스케 동화상 수상작으로 나팔꽃처럼 활짝 마음이 열리고, 우정이 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선생님에게 적응하는 것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다. ‘학교’라는 낯선 환경을 만나게 된 아이들은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서 한동안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며 다양한 아이들과 어울리고 또 부딪치게 된다. 이때 자신과 잘 맞는 짝을 만난다면 좋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하루’는 학교에서 새 친구들도 사귀고, 다정한 선생님을 만나 학교생활이 즐거웠다. 딱 하나, ‘타키’와 짝궁이 된 것만 제외하고, 유치원을 같이 다녔지만 목소리도 크고 힘도 세서 조금 무섭기까지 한 타키. 게다가 화단에서 꽃 그림을 그리는 날, 타키는 하루가 제일 싫어하는 애벌레를 보여줘서 하루를 울려 놓고는 도리어 화를 냈다. 그날 이후, 하루는 타키 목소리만 들어도 흠칫 놀라게 된다.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는 타키에 대한 두려움과 타키의 화분을 넘어뜨리고 나서 흔들리는 하루의 마음, 애타게 기다리던 나팔꽃이 짝을 틔웠을 때의 감동 등을 담백하고 진솔하게 어루만진 작가의 마음은 이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바람처럼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하루가 타키에게 가진 두려운 마음도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와 우정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하루와 타키를 통해 진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 활동 목표

1. 입학과 동시에 느끼는 설렘과 두려운 감정에 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
2. 줄거리의 흐름을 이해하고, 실수했을 때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3. 하루와 타키의 나팔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내가 타키가 되어 고마운 마음을 담아 하루에게 편지글을 쓸 수 있다.

### 생각 열기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하게 되면 설렘도 있지만 걱정이나 두려움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 어떤 것도 좋아요.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또 어떤 친구가 내 짝궁이 되었으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을 해 보세요.

- ① 3월부터 1학년이 된 하루는 학교생활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딱 하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나요?
- ② 화단에서 꽃 그림을 그리던 날 하루가 울음을 터뜨린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 ③ 하루의 나팔꽃은 그새 두 번째 짝을 틔웠어요. 기뻐하며 놀라는 미이와는 달리 하루는 웬지 미안한 마음만 들었어요. 왜일까요?
- ④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하루는, 자신의 나팔꽃의 한쪽 짝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5 볼거리가 모두 나온 타키는 학교에 나와서 하루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생각 펼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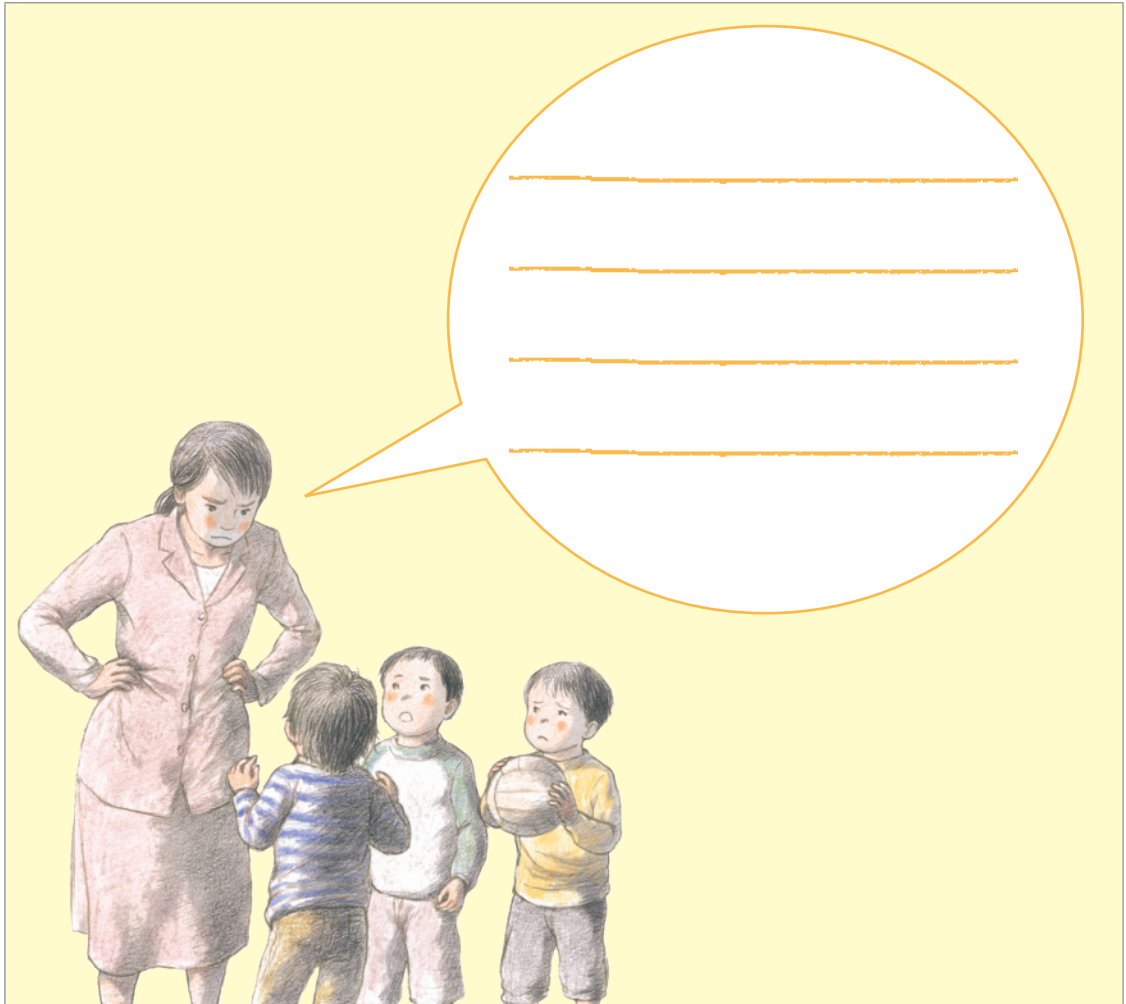
누가 내 화분 넘여뜨렸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낯선 환경 속에서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또 새로운 환경에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과 혼란을 동시에 느끼게 되지요. 어느 날, 하루는 화분에 물을 주고 일어서다 그만 옆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신의 짝꿍인 무섭고 힘도 센 타키의 화분이었습니다. 과연 타키의 나팔꽃은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줄거리를 써 보세요.

|                                                                                     |                                                                                      |
|-------------------------------------------------------------------------------------|--------------------------------------------------------------------------------------|
|    |    |
| <p>하루는 타키 화분이 넘어지자 쏟아진 물을 주워 담고 몇 번이고 물을 다졌다.</p>                                   | <hr/>                                                                                |
|   |   |
| <hr/>                                                                               | <p>타키의 화분에는 싹이 나지 않아, 하루 가슴이 두근두근 방망이질 쳤다.</p>                                       |
|  |  |
| <p>볼거리로 타키가 학교에 나오지 못하자, 하루는 타키의 화분에 매일매일 물을 주었다.</p>                               | <hr/>                                                                                |
|  |  |
| <hr/>                                                                               | <hr/>                                                                                |

##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루가 타키의 화분을 엮지른 것은 실수였지만 그래도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는 친구에게 사과해야 해요. 또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하고요. 하지만 하루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때마침 아이들을 야단치시는 선생님의 화난 표정을 보고 미리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타키가 불거리에 걸려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사과를 못 한 하루의 마음은 더 무겁기만 합니다. 하루가 선생님께 용서를 빌면 선생님은 하루가 생각한 대로 엄하게 화를 내실까요? 하루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하실 말씀을 상상해서 말 주머니에 써 보세요.



- 선생님께 용서를 빌기 전 하루의 마음과 선생님께 용서를 빌고 나서의 하루의 마음은 어떻게 다를지, 하루의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해 보세요.



타키가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동안 하루는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타키의 화분에도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나팔꽃이 두 개나 싹을 틔울 때까지 타키의 화분에서는 좀처럼 싹이 나오지 않자 하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요. 그런데 하루의 정성 덕분에였을까요? 영영 싹을 틔우지 못할 것 같던 타키의 나팔꽃이 싹이 돋아나 있었어요. 하루와 타키의 나팔꽃이 무럭무럭 자랐을 것을 상상하면서 아래에 제시된 나팔꽃을 보고 따라서 그려 보세요. 또 여러분이 타키가 되어 고마운 마음을 담아 하루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 나팔꽃 그리기

